

데스크 시각

김미은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빨간 지시봉, 도로변에서 수신호를 보내며 차량 소통을 돕는 그의 손길이 분주하다.

지난 9월 즈음부터 광주문화회관 후문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곳은 공연 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차량들로 언제나 북새통이었다. 사실, 그가 수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차량 흐름이 아주 빨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운전자들에게는 고마운 모습이다. 서울 예술의전당 등 대형 공연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말이다.

나 홀로 문예회관 주차관리

그는 지난 9월부터 광주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다. 회관 측이 개방형으로 뽑은, 유일한 민간인 출신 공무원이다. 그의 직급은 공연사업과장. 문예회관장 다음 자리다. 아래 직원들이 많은데도 홀로 주차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의아했다. "문예회관에 공연 보러 오래 다녀지

막고, 회관 측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처음 보는데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직접 하세요? 그것도 혼자?"

기자의 질문에 첫 대답은 이랬다. "어휴, 이쪽이 정리가 안 돼 차가 엄청 막혀요." 인상적인 말이 이어졌다. "저도 공연 보러 다녀봐서 아는데, 차 막히면 짜증나

저분 공무원 맞나요?

고 그래요. 감동을 간직한 채 집에 가고 싶고, 얼른 찾지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잖아요. 직원들에게 갑자기 시키는 거 그렇고 일단 제가 해보는 거죠. 뭐."

그의 모습은 다른 이에게도 낯선 풍경이었던 듯했다. 회관에 자주 오는 지인의 말. "저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공무원 맞아요? 말단 직원입니까?" 어떤 날은 표를 받고 있고, 또 어떤 날은 장애 정리를 하고 있고, 공연 후엔 주차 관리를 하는 등 홀로 뛰는 모습을 보고 굳기 바짝 된 신입 말단 직원이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공연장에서 '내일 네일'이 없이 뛰는 것. 극단 '미추' 연출가 출신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연시간이 다가오는데 줄이 줄어들지 않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뚱다. 작품에 몰입하고 있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은 없다.

본인이 직접 작품을 무대에 올려봤고, 수차례 관객이 돼 객석에 앉아 있는 '경험'을 해 봤기에 타인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거다.

그가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일부 공무원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랏돈 보러 다녀봐서 아는데, 차 막히면 짜증나

주관 대형 행사에만 수첩 챙겨 참여하지 말고 "소극장 공연을 꼭 한번 보시라"고 권했다.

티켓을 구매하고, 객석에 앉아 배우의 숨소리를 직접 들으며 '경험'해 보면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될 거라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될 거라고 했다. 현장을 찾고, 바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현장 목소리 듣는 공무원

최근 접한 'Save the 이웃길 공무원' 공연 소식은 인상적이었다. 루게릭병을 선고받은 공무원 김경민씨를 돕는 공연을 꾸린 건 흥대 앞 뮤지션들. 김씨는 흥대 주민과 예술가의 교류를 제안했고 대관·서류 절차 등 잡무도 도맡은 인물이다.

특히 김씨가 부지선과 상인을 다름을 늘상 조물했다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상황으로 휘청거렸던 예술의 거리나 대인시장 사례가 떠올라 부럽기도 했다.

새해에는 좀 더 많은 공무원과 공연이 나 전사회를 관람하고 싶다. 문화뿐 아니라 '창조도시' 광주의 모든 공무원들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기대한다.

참, 요즘 문예회관에선 그 말고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주차 관리를 하는 중이다. <문화생활부장> mekim@kwangju.co.kr

시설

'금호 노사'가 보여준 워크아웃 회생 의지

30일로 워크아웃 1년을 맞은 금호아시아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던 주요 계열사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왕성한 영업활동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워크아웃 졸업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다. 광주·전남을 모태로 한 금호아시아의 회생 '청신호'는 분명 유리에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2136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금호타이어는 올해 20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며, 금호산업은 3분기까지 118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5조 원대의 매출과 6700억 원의 영업이익 등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근로자의 회생과 회생 의지, 회사의 자구노력이 한데 어우러진 결실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결실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 '호남기업'이 심각한 지경에 자산 매각이 늦어져 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현재로서 큰 문제다. 최

근 국내 물류업계 1위인 대한통운을 시장에 내놓고,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의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손조림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노사 및 노노 간의 갈등은 유지하다 시피 최대의 장애물이다. 창사 이래 64년간 무분규를 기록해온 금호고속 노조가 최근 첫 시한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민노총, 한노총으로 나뉜 노노 갈등을 더해 준다. 해고자 복직과 임금 반납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우리는 그들 회생을 위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사간의 관계 회복을 당부하고 싶다.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 지금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주문한다.

대표적 '호남기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모두에게 상처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고삐 풀린 새해 물가 '친서민'은 헛구호인가

연말연시 물가가 예상처럼 않다. 장바구니 물가가 지난 가을 이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기름값과 쌀값을 비롯해 공공요금, 등록금, 전세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인 것이다. 이래저래 서민의 등만 더욱 휘어지게 됐다.

지난주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두바이 유를 비롯한 세계 3대 유종 모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해 2년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휘발유값이 8당 1900원이 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

또한 밀·옥수수·콩의 국제 시세는 최근 반년 사이 10~50%씩 올랐고, 원당값도 전년 대비 22% 올랐다. 원자재가 뛰면서 설장 출고가는 이미 10% 가까이 인상됐다. 곧 밀가루값도 크게 인상될 예정이어서 빵·과자·음료수 등 가공식품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당연히 음식값이나 개인 서비스 요금도 덩달아 뛰게 된다.

배추 등 채소값은 가을보다는 낮아졌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폭등한 수준이다. 여기에도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들쭉거리고 새 학기를 맞아 등록금과 전세금 등도 이미 인상됐거나 대기 중이다. 새해를 눈앞에 두고 물가 쓰나미가 서민 가계를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물가상승 요인은 전방위적이고 구조적인 데 비해 정부와 물가당국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고 비현실적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얼마 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목표인 3%를 넘지 않게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주부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두 자리 숫자를 훨씬 웃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3%는 공허한 얘기일 뿐이다.

정부는 '친서민'만 외칠 것이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부담부터 덜어줘야 한다. 경제성장도 좋지만 지금은 값어만 가는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펴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음부즈맨 칼럼

박순형



최근 얼어붙은 사회분위기가 탓인지 세밀 기부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양로원이나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기반하고 소외된 이웃들은 더욱 외롭고 힘들게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한다.

기부는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돈이나 물건 등을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뜻하며,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웃사랑의 실천 양식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행복한 기부, 나눔의 미학을 강조하며 기부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명망가 및 기업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온정이 이어지면서 훈훈한 공동체 사회를 이뤄왔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공유형 비

채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겨지는 현실이 안타깝게 무료 사진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11월 8일자에 실린 12년째 '사랑의 가위손' 광산구 이·미용 봉사단원들은 12년째 화요봉사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처음에는 인광병원에서만 사랑의 가위손을 들었으나, 차츰 요양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등으로 봉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6년째 광주에서 구세군 활동을 하는 이기종 사관의 자선법비에도 사랑이 넘쳐 흐르고, 이 땅에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 밖에도 많은 사회단체나 기업, 학

은핀칼럼

송민석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데 옆 학생이 바빠 무언가를 적고 있어서 살펴보니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학원의 선수학습에 매달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수능이나 내신의 점수 경쟁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말살하는 주범이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키워드는 '입학사정관제'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접수 이외에도 환경과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236억 원, 올해 350억 원의 예산을 입학사정관제 전환을 도입하는 대학에 지원했다. 대학마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외

의존해 교외 경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을 교내로 끌어들이는 데 큰 효과를 내고 있음도 사실이다.

물론 부작용도 없지 않다. 교내 경시 입상자 수를 늘리기 위해 영어 경시를 듣기, 말하기, 쓰기로 세분화하고 학기별, 학년별로 수상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입상자 수에서 인플레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교내 경시의 활성화는 학생들이 사교육보다는 교사의 수업과 교내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 다행이다.

이제 교내 경시대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출제와 채점에 다수의 교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과목

휴먼 스토리에 더 많은 관심을

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기부문화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안타깝게울 뿐이다.

그나마 잠시 주춤하던 기부 열기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고, 특히 몸으로 하는 자원봉사는 크게 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기부를 꼭 돈이나 물건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사랑 나누는 실천하는 재능기부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

광주일보 12월 13일자 '행복한 자원봉사, 8년째 일시보호 영아 백일·돌 사진 찍어주는 오종국씨 가족'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하고 훈훈한 감동을 전해 준다.

25년째 아기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오종국씨네 가족은 아직은 여러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혼모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겨지는 현실이 안타깝게 무료 사진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11월 8일자에 실린 12년째 '사랑의 가위손' 광산구 이·미용 봉사단원들은 12년째 화요봉사를 계속해 오고 있으며, 처음에는 인광병원에서만 사랑의 가위손을 들었으나, 차츰 요양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등으로 봉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6년째 광주에서 구세군 활동을 하는 이기종 사관의 자선법비에도 사랑이 넘쳐 흐르고, 이 땅에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종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 밖에도 많은 사회단체나 기업, 학

고교 학생부, 대입 신뢰성 확보 첫걸음

국어고·과학고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다.

입학사정관제 전환 비율이 확대되자 이른바 맞춤형 스펙을 제시하는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생겨나 새로운 고액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입학사정관 입시의 주도권을 사교육 업체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고등학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선 입시 컨설팅업체보다 입학사정관제에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미고 활용할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이야말로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의 첫걸음이 아닌가. 그런데도 일부 고교에서 작성이 끝난 학생부 기록을 대입에 유리하게 고치거나 교내 경시대회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 사교육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 중 하나가 생활기록부에 교외 경시대회를 기록할 수 없고, 교내 경시대회 결과만 기록하도록 한 조치이다. 사교육에

별 출제와 채점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대학이 고교의 학생부를 믿지 못하면 대학입시의 토대가 흔들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봉사활동의 경우 서울의 특목고 중심으로 대부분의 고교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사회복지기관을 정해 매년 기계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언뜻 보면 사회복지기관이라 의미 있는 봉사활동으로 보이나, 강제로 조를 이루어 나가는 봉사활동이 대부분이다. 자발성이 없는 봉사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두가 신뢰를 허무는 일들이다. 우수성 입증자료의 분량보다 더 큰 문제는 객관성과 신뢰성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환은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면서, 사교육 업체들의 입시 컨설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고교와 대학의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가난한 학생들은 더 기댈 곳이 없다.

<국립대학법인 UNIST 입학사정관-전 여천고교장>

無等鼓

'세상의 중심에서 엄청난 불꽃이 솟아오르고/ 새로운 도시 주변에서 세상은 부들부들 떠다/ 두 고귀한 존재가 득없는 싸움을 벌이니/ 봄의 요정이 강물을 붉게 물들인다.'

16세기의 예언자 노트르다무스가 지었다는 4행시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이 4행시가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세계무역센터 붕괴사건을 예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과거의 예언들은 대부분 모호한 표현을 사용,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검증의 그물을 빠져나가지

만,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언이 존재한다. 바로 특정 날짜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예언이 그것이다.

중세의 한 예언가는 1524년 2월20일에 수성고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늘어선다는 지구에 큰 홍수가 일어나 세상이 멸망한다고 주장했다. 이 한마디에 전 유럽은 공황상태에 빠졌

다. 영국에서는 2000여명이 절망에 빠져 집을 버린채 피신했으며, 일부 독일인과 프랑스인들은 필사적으로 방주를 건설했다. 하지만 막상 종말의 날이 되자 비단 조금 왔을 뿐 대홍수는 일어나지 않았고, 집을 버리고 공포에 떨던 군중들은 분노에 휩싸여 폭동을 일으켰다. 예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적지 않다.

1912년 4월 첫 항해 도중 빙산과 충돌해 침몰, 승객 2207명 중 1502명이 숨진 타이타닉호의 경우 예약 취소율이 42%에 달했다. 상당수가 '배가 난파되는 악몽을 꾸거나, 어쩐지 기분이 나빠서' 예약을 취소했다고 한다.

미국 코넬대 심리학자 대릴 뱀이 지난 8년간 1000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인간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내년 1월 '인성과 사회심리학 저널'에 관련 논문 발표한다고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논문이 기다려진 다. /홍행기 정경부 차장 redplane@

예지력



귀농자 전원주택 담보 모기지론 '그림의 떡'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1사1촌운동을 전개하며 '농촌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농촌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인들이 귀농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도시인들은 여의치 않은 여건들로 인해 쉽게 귀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농림부와 농촌공사가 귀농을 높기 위해 전원주택·마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문제이다. 최근 은행

자금을 빌려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상환해 가는 모기지론 제도가 있다. 하지만 농촌에 지어지는 주택들은 담보 단가가 낮아 은행에서 모기지론 대출을 거부하고 있어 전원주택 희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원주택 입주희망자들에게 모기지론 대출을 연계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면 1사1촌 운동과 더불어 농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금동

광주일보에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핀상'을 수여 합니다. 은핀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핀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0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신문등록번호 2가 20-2우편번호 501-711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222-4918		222-4918	
222-612		222-697	
222-4918		222-693	
222-616		222-571	
222-4267		2200-685	
222-4918	2220-661	2220-515	2220-541
2220-649	2220-621	222-8005	222-0195
2220-612	2220-697	227-9600	2200-551
222-4918	2220-693	227-9500	227-9500
222-4918	2220-697	2200-536	02-773-9331
222-616	2220-571	2200-555	04-773-9335
222-4267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